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년 12월 8일(수) 11:00	매 수	9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6매
	담당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김미림 전문연구원 ☎ 044-414-1096 ✉ mlkim@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 044-414-1175		

KIEP, 신남방정책 추진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세미나 개최
- 김홍중 원장,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들과 신남방정책의 성과 평가, 한국과 신남방지역간 사람·상생번영·평화 분야의 향후 협력과제 도출
- 남영숙 위원장, 신남방지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지역질서 수립 지원 등 신남방정책의 향후 협력 방향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유튜브 현장 생중계)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IEP가 주관한 본 세미나는 3개의 세션을 통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별 주요 성과를 논의하였으며, 한국과 신남방지역간 사람·상생번영·평화 분야의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세미나는 특히 주한 신남방지역국가 대사를 비롯하여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 정책관계자와 신남방지역 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간 신남방정

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함으로써 후속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마테우스 마이클 테네(Robert Matheus Michael Tene)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사무차장, 김홍중 KIEP 원장이 참여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를 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신남방정책이 경제적 관점에 치중하였던 과거 외교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인본주의적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신남방정책이 경제적 번영뿐만이 아닌 진정한 상호번영의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한국과 신남방지역간 사람·공동번영·평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보건 의료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비전통안보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등의 분야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의 성공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인 지역질서 수립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로버트 마테우스 마이클 테네(Robert Matheus Michael Tene)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사무차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간 조화로운 협력을 모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홍중 KIEP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상호호혜적인 신남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가 오미كرون 변이의 확산 우려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포용적 보건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세션에서는 김홍중 KIEP 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들과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김홍중 원장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성과가 인도와 아세안, 그리고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향후 과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사람·평화 분야의 성과와 협력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안보현안에 대한 아세안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대동남아 삼각 협력 강화 △비전통안보 협력 확대 △한-해양 동남아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등을 신남방정책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산딕 쿠마르 미슈라(Sandip Kumar Mishra) 자와하랄 네루대학교 교수, 홍문숙 부산외대 교수, 연세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각각 사회문화, 교육 및 인적 자원, 보건협력과 인간안보 분야의 성과와 협력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인프라, 미래 산업협력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신남방지역 간 공동번영 분야 성과와 협력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모한티(S.K. Mohanty)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교수는 인도의 무역 투자 전략과 한국-인도 간 경제협력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한형민 KIEP 부연구위원은 아시아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협력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지아 쯤(Fauziah Zen) 인니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개발을 통한 신남방지역 연결성 제고를 주제로, 이충열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산업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별첨1.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국제세미나 웹초청장

별첨2.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사진1]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 국제세미나 단체사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아흐메드 파미 아흐메드 사카위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 김홍중 KIEP 원장,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젤다 올란 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대리, 롬마니 카나누락 주한 태국 대사, 찌룽 보툼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핑에란 하자 누리야 피엘더블유 핑에란 하지 유소프 주한 브루나이 대사,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스리 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딘 신 주한 미얀마 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옹우옌 부 똥 주한 베트남 대사, 박기창 신남방특별위원회 심의관.

[사진2]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최식에서 김홍중 KIEP 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3]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개회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회식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4]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최식에서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5] 로버트 마테우스 마이클 테네(Robert Matheus Michael Tene)
ASEAN 사무차장 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최식에서 로버트 마테우스 마이클 테네(Robert Matheus Michael Tene) ASEAN 사무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6]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 국제세미나 현장사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2월 8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IEP가 주관한 본 세미나는 3개의 세션을 통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별 주요 성과를 논의했으며, 한국과 신남방지역간 사람·상생번영·평화 분야의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했다.